



Seminar on

# Hospital Apostolate

제 21차 세미나 초록

◎ 演 題 ◎

## 병 원 사 목

- 나병원의 경우 -

프라이징거 엠마

<한국가톨릭나사업가연합회장>

## Hospital Apostolate

- The case of the Leprosarium -

President : Miss Emma Freisinger

Catholic Leprosy workers Assoc.

병원이란 점에서 나병원이 일반병원과 크게 상  
위한 바는 없다. 병원으로서의 목적도 같고 시설  
도 같고 의료방법도 같다. 다만 이용대상(환자)  
이 나환자들이란 점에서 다를 뿐이다.

즉, 나환자 - 가장 버림받고 소외되고 천시되는  
외로운 - 나환자들만 상대하기 때문에, 환언 하면  
나환자들은 인간의 정이 그리운 사람들이다. 이  
넓은 천지에 어디를 가도 사람답게 따뜻하게 맞  
아주는 이가 없다. 부모형제, 친척마저 그러한 정  
편이니 남들이야 말할 필요조차 없다. 그래서 그  
들은 인생을 자포자기한 나머지 適期治療를 놓쳐  
자신을 불구로 만든다. 또, 나병원은 여사한 특  
수계층의 환자들만 상대를 하기때문에 자연 일반  
병원과는 다른 점이 있다. 즉 나병원에서 일하는  
종사자들에게는 精神的 態度나 方法 또 人的 構  
成等에 다소 특수한 점이 있으며 일반사회에선 상  
상조차 못할 웃어야 할 일, 울어야 할 일, 보람된  
일등이 많이 있는 것이다.

### 精神的 態度와 方法

일찌기 이 땅에 건너와 구라사업을 하던 어느  
외국인이 부지중에 불쑥 한말이 생각난다. " 아  
이고, 내가 차라리 나병에 걸려 나환자가 된다면  
몰라도 그렇지 않은 이상 그들과 나사이에 가로  
놓인 장벽을 어떻게 없앨 수 있을까? "

몰로카이섬에서 나사업을 하다가 1889년 결국  
나병으로 他界한 다미안신부나 이땅의 초대 가톨릭  
계 구라사업가인 스위니신부나 또 손양원목사  
의 정신 역시 같은 것이다.

그래서 치료중에 꼭 꺼야할 마스크나 장갑도

일부러 안기고, 의사도 의료행위뿐 아니라 그들의 벗이 되고 형제처럼 다정한 상담역도 병행해야 하며 식사도 한 식탁에서 기쁜 마음으로 즐겁게 해야한다. 간혹 출장이라도 가는 경우 물론한 방에서 자는것도 사양치 않아야 하는 것이다. 그뿐인가? 정기적으로 치료를 받아야 할 환자가 장기간 오지 않으면 일차로 그래선 안되니 와서 계속 치료를 받으라는 친절한 편지를 띄우고 그래도 소식이 없을 땐 사람을 보내 면담등 기타 적절한 방법을 취해야 한다. 자기병을 자신이 치료 않는 사람한테 그게 무슨 바보같은 것이냐, 할 일이 몹시도 없는가 보다하고 웃을 지도 모르지만 사실은 중대한 문제인 것이다.

요약하면 나사업 종사자들에게는 지위 高下나 업종을 불문하고 특수한 사명의식과 -나환자들을 보고 하나님을 생각한다는 어느 신부님의 말씀같이-확고한 신앙심이 아니고는 극히 어려운 것이다.

퇴원하는 환자가 교통비가 없으면 여비까지 줘야 한다. 그러니 나병원엔 유료 무료란 용어가 있을 수 없다. 따라서 진료비관계로 야기되는 분쟁이 아예 없으니 어찌면 편리하다고나 할까?

지난 4월 하순에도 단기입원환자 수십명을 데리고 인근 유원지에 함께 소풍간 일이 있었지만 병원측과 치료하러 온 환자와 가끔 야유회를 갖는 일이란 일반 병원에서는 있을 수도 없고 또 있어서도 안될 일이다. 문둥이대장이란 별명도 이런 때에 생기게 마련이다. 나병원에선 병원주최로, 병원책임하에 병원부담으로 봄이나 가을에 자주 이런일이 계속된다.

때에 따라선 나병원은 그들의 여관역할이나 잡사의 휴식처로도 제공된다. 앞에서 말한바와 같이 地廣千里不伸足인 사회, 어디 마음놓고 하룻밤이라도 쉬어 갈곳이 없으니 외지에서 볼 일 보러 온 사람, 혹은 소록도나 기타 장기수용시설에 입원 중인 수용환자들은 나온 집에 가끔 들러 서로 끊겼던 안부는 물론 소식도 전하고 만나보기도 하는 곳이 나병원이다.

일반 병원에선 추석이나 성탄등 명절이 되면 환자수가 줄거나 입원중인 사람도 웬만하면 자기집에 돌아가고자 함이 당연하지만 나병원은 설이나 성탄, 추석등 명절이 되면 여러 곳에서 의로움을 달래고자 일부러 모인 환자(?)들로 초만원을 이룬다. 그것은 병원측에서 쓸쓸한 입원자들을 위해 베푸는 특별행사(?)에 참여하는 것은 물론, 각처에서 꾸집한 선물을 갖고 찾아오는 많은 인사들의 위문품에 한 몫 질 수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입원중인 환자가 죽게되면 수의를 마련하고 관을 사고 운구해서 장례까지 지내주는 것 또한 당연한 의무이기도 하다. 15~6년간 나병원을 경영해 보았지만 시체나 유해를 찾아가는 유족이나 친척을 아직까지 한번도 본 일이 없다. 따라서 나병원 환자들의 전용 공동묘지도 의당 있어야 하고 가을에 별초나 11월 2일 위령의 날 행사도 있어선 아니되며 묘마다 나무비석이라도 세워 놓아야 함은 물론 죽은 후의 묘지관리, 의로운 영혼문제까지 배려를 해야한다.

나병원은 가끔 결혼 중매소 역할도 해야 한다. 한정된 사람들만 대상으로 하다보니 별로 신기할 것도 없을 뿐 아니라 그들의 사회생활을 위해 없어서는 안될 일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대담한(?) 총각들이나 외로운 홀아비들에게서 자주 애절한 사연이 담긴 중매호소문을 받는다.

나환자들에게는 나병을 옳게 알고 바르게 치료할 철저한 계몽교육에서 부터 그들의 안식처인 정착촌의 자립과 복지향상을 위한 갖가지 교육, 즉 의존심이나 의타심을 버리게 하는 자립정신교육, 영농기술교육, 농기구기계교육, 양계, 양돈, 양잠교육, 신앙교육, 가족계획교육(행가운), 환자 자녀들의 직업보도교육, 자녀들 교육비 지원, 부녀회육성지도, 도로개설, 전기, 상수도, 전화, 黃牛團地 조성, 농토매입, 교량가설등에 이르기까지 자립지원에 막대한 외원을 투입해야 한다.

지금까지 수많은 환자들이 입원실을 거쳐갔다. 그리고 그중에는 신교신자, 불교신자, 무종교자등

신앙별로 보면 각양각색이지만 병원은 종교에 대해 조금도 차별대우를 하지 않았고 앞으로 하지 않을 것이다. 완전한 사랑에는 조건이나 한계가 있을 수 없기 때문이다. 사경이 임박한 환자에게 非常세례를 주는 외에는 종교에 대한 간섭도 없었다. 그러나 입원전 신앙을 갖지 않았던 대부분의 환자들은 퇴원전엔 거의 가톨릭으로 귀의한다. 자랑갈지만 百聞而不如一見의 결과라고나 할까.

사업자가 사업에 종사하다가 병사하는데 별로 기이할게 없다. 결핵병원의 종사자가 결핵에 감염되어 죽었다해서 크게 이상할게 없다. 그런데 나사업을 하던 다미안신부가 나병에 감염되어 別世했을 때엔 온 세상이 발칵 뒤집어지다시피 하였다. 그때까지만 해도 순수 선교사업에만 전념하던 각 종교단체가 이때부터 “우리가 할 일이야말로 바로 불쌍한 나환자들을 구제하는 일이다” 하여 구라사업에 비로소 착수하게 되었던 것이다.

#### 人的構成 問題

병원이니까 역시 갖추어야 할 인적구성원은 같다. 의료분야가 있어야 하고 행정분야가 있어야 하며 세탁, 청소, 경비등 잡무직도 또한 필요하다. 그런데 앞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환자와 종사자 사이에 가로막힌 벽을 없애고 보다 가까이, 보다 한마음, 한사랑으로 同苦同樂의 인간관계가 조성되고 유지되기 위해서는 가능한 한 특수한 방법이 강구되지 않으면 안된다. 입원자 중에서 선정된 사람을 훈련시켜 행정적 요직에 집무케 한다든지 의료보조원을 음성치유자나 그들 자녀중에서 기용하는 등의 방법이다.

#### 웃어야 할 일

나사업기관에서 오랫동안 일하다보면 사회인들로부터 나환자로 오해받는 일이 허다하다. 행정직은 물론 의사나 간호원들도 거의 몇번씩은 다 겪었으리라.

뿐만 아니라 나사업기관 종사자와 가까이 지내는 사회인도 간혹 나환자로 오인받는 경우도 있으며, 과잉친절을 베풀다보면 나환자들 자신들로부터도 진짜 나환자로 오인받아 대등시하고자 하는 점잖은(?) 대접을 받을 경우도 왕왕 있다. 나병원에 와서 용변 한번 본 사람이 “밤새 잠을 못잤으니 어찌면 좋으냐?”는 호소전화도 심심치 않게 받는다.

#### 울어야 할 일

癡商人이란 말이 있다. 물론 나환자를 利權視하고 상품시하고 이용하는 似而非救癡人들에게 그들이 붙인 불명예스런 이름이다. 우리나라에도 전혀 없지는 않기에 그들이 붙었으리라. 그런데 천이면 천, 만이면 만, 다 잘 해줄 수는 없다. 결코 성의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능력이 없고 재력이 없고, 요건이 맞지 않을 때에는 안타까운 일이나 그들의 비난을 면치 못한다. 참으로 애석한 일이다. 더구나 물이해한 일반으로부터 癡商人취급을 받을 때는 혼자 울고 싶은 심정이다.

#### 보람된 일

온 사회가 멀리하고 온 병원이 기피하는 그들을, 따뜻하게 보살펴 치료해 주고 수술해주고 고쳐주고 여러모로 도와주어, 그들이 새사람으로 사회에 다시 새출발하는 희망찬 모습을 볼 때 조물주의 아름다운 섭리를 찬양치 않을 수 없으며 지존하신 그 분께 어찌 감사치 않을 수 있으리요.

폭등하는 물가고에도 불쌍한 그들을 도와 주라고 전국 각지에서 초종교적으로 나환자돕기회인 릴리회가 요원의 불같이 日加月增하는 아름다운 인정의 답지는 어렵고 어려운 구라사업이지만 우리들에게 큰 희망이요. 빛이요, 위안이요, 보람이 아닐 수 없다. 수십만의 국내의 릴리회원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뜨거운 감사와 경의를 드린다. ◆